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보다 나은 정부

2019년 8월 23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8.22(목) 19:00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9. 8. 22(목)	담당부서	자유무역협정이행과
담당과장	신지현 과장(044-203-5760)	담 당 자	김선애 사무관(044-203-5762)

「한-영 자유무역협정(FTA)」 정식 서명으로 노딜 브렉시트*에도 영국과의 통상관계 안정성 확보

- 한 통상교섭본부장-영 국제통상부장관, 「한-영 FTA」 정식 서명
- 산업혁신기술 등 협력 잠재력이 높은 5대 전략분야 협력 강화

* 영-유럽연합 간 합의 없이(No-Deal) '19.10.31일부로 영국이 유럽연합을 일방적으로 탈퇴

[한 · 영 자유무역협정(FTA) 정식서명 의의]

□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19. 8. 22(목) 런던에서 엘리자베스 트러스(Elizabeth Truss)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과 **한-영 자유무역협정(이하 'FTA')을 정식 서명**하였다.

○ 양측은 지난 6월 10일 한-영 FTA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한 이후 협정문 법률 검토 및 국내 심의절차를 진행하였으며, **오늘 서명을 마지막으로 양국 간 협상 절차를 완료**하게 되었다.

□ 탈퇴조건이나 미래협정에 대한 합의 없이 19.10.31일부로 **영국이 EU (이하 '유럽연합')를 일방적으로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지속되**고 있는 가운데,

○ **한-영 양국은** FTA를 체결함으로써 **노딜 브렉시트의 경우에도 한-EU FTA에서의 특혜무역관계를 유지하고, 우리 기업은 안정된 교역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비즈니스를** 할 수 있게 되었다.

[한 · 영 FTA 주요내용]

□ 양국은 **한-영 FTA**를 **한-EU FTA 수준**으로 체결하여, 브렉시트 이후 **양국간 안정적 비즈니스 환경을 유지**하는데 **우선순위**를 두었다.

(상품 관세)

○ **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**하기 위해 **한-EU FTA**('11.7월 발효) **양허를 동일하게 한-영 간에 적용**하기로 합의하였다.

- 이에 따라 자동차, 자동차 부품 등 **우리 주요 수출품을 현재와 같이 무관세*로 영국에 수출**할 수 있게 된다.

  * 현재 대(對)영국 수출시 전체 상품 중 99.6% 무관세(공산품 100%, 농산물 98.1%), 한-영 FTA 미체결시 평균 4.73% 수출 관세 부과

○ **국내 농업의 민감성 보호**를 위한 **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***(ASG)는 EU보다 낮은 수준의 발동 기준으로 설정했으며,

  *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품목 : 쇠고기, 돼지고기, 사과, 설탕, 인삼, 맥아·맥주맥, 발효주정, 변성전분, 감자전분 등 9개

- **국내 수요에 비해 생산이 부족**한 **맥아·맥주맥과 보조 사료**에 한해서 저율 관세할당(TRQ)을 **제공**키로 하였다.

(원산지)

○ 양국기업이 EU 역내 운영하고 있는 기존 생산·공급망의 조정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, **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3년 한시적으로 역내산으로 인정**하기로 하였다.

- 또한 **3년 한시적으로 EU를 경유**하여도 **직접 운송으로 인정**토록 하여 우리기업들이 **EU 물류기지를 경유하여 영국에 수출**하는 경우에도 한-영 FTA**의 혜택**을 받을 수 있게 된다.

(지적재산권)

○ 기존 EU에서 인정하던 지리적 표시를 그대로 인정하여, **영국 측 주류 2개 품목, 우리측 농산물·주류 64개 품목을 지속적으로 보호**키로 합의하였다.

※ 주요 지리적 표시
- 한국(64개): 보성녹차, 순창전통고추장, 이천쌀, 고려홍삼, 고창복분자, 진도홍주 등
- 영국 (2개): 스카치위스키, 아이리시 위스키(국내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에 보호)

□ 이와 함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**한-영 FTA 서명계기**에 영국 국제통상부장관과 **3건의 서한에도 추가로 합의**하여, 향후 **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**해나가기로 하였다.

* ① 이행기간 확보 시 추가협의 서한, ② 양자협력 강화 서한, ③ 고속철 정부조달 양허개선 서한

○ 먼저, 영국이 EU와 탈퇴에 합의(딜 브렉시트)하여 2020년 말까지 **이행기간이 확보**되는 경우, 그 기간 동안 **양국은 한-EU FTA 플러스 수준의 협정 업그레이드를 위한 협상을 개시**하기로 합의 하였다.

○ 또한, 양국은 경제성장, 고용창출 및 혁신을 위해 **협력 잠재력이 높은 5대 분야**(산업혁신기술, 중소기업, 에너지, 농업, 자동차)에서 **양자 간 협력을 강화**하기로 하였다.

○ 아울러, 영국은 **고속철분야의 양허 검토**를 서명이후 신속하게 개시하고 향후 FTA 협상과정에서 **적극 고려**하기로 합의하였다.

[한 · 영 FTA 의의]

□ **첫째**, 영국이 합의 없이 유럽연합(EU)을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의 경우에도 **한-영 FTA**를 통해 **한-영 간 통상관계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**하였다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.

○ 영국은 **EU 회원국 중 두 번째로 큰 우리의 교역 상대국**인 바, 이번 한-영 FTA 체결을 통해 **우리기업들은 노딜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영국기업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비즈니스**를 할 수 있게 되었다.

□ **둘째**, 이번 **한-영 FTA는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**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.

○ 노딜 브렉시트로 **이번 FTA가 발효하게 되면 2년 내**에 **개선협상을 개시**키로 하고,

○ 또한 딜 브렉시트로 인하여 영국의 EU 탈퇴 **이행기간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한-EU FTA 플러스 수준의 협정 업그레이드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**.

* 투자, 무역구제 절차, 지적재산권, 원산지 등 우리측 관심사항을 반영한 추가협의

□ **셋째**, 양국은 4차 산업혁명 및 미래 신산업 시대에 대응하여, 양국이 **혁신의 파트너**로서 **세계 첨단·유망산업을 주도**하는 **산업·혁신기술** 협력을 강화하게 되었다.

○ 양국은 **인공지능, 빅데이터, 미래차, 바이오, 시스템반도체 등 첨단 유망 5대 산업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한다.**

○ 특히, 올해부터 양국의 **공동펀딩 R&D사업*이 출범**함으로써 양국의 **혁신기업이 참여하는 기술 협력이 본격화**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* '19년부터 양국이 각각 매년 30억원, 200만 파운드를 펀딩하여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에 대해 R&D 지원(담당기관: 한 산업기술진흥원-영 혁신청)

□ **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**은 "한-영 FTA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교역을 통해 양국의 공동번영을 촉진하게 될 것"이라 평가하며

○ "브렉시트와 같은 불확실한 환경에서 벗어나 **우리기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역과 투자활동을 펼쳐** 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철저히 준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"이라고 강조하였다.

□ 한편, 엘리자베스 트러스 국제통상부장관은 "이번 영-한 FTA 체결을 통해 **통상 관계의 연속성을 마련**함으로써 브렉시트 이후에도 양국 기업들은 **추가적인 장벽 없이 교류**할 수 있게 되었고, **양국 간 교역은 더욱 증가**하게 될 것" 이라고 설명하였다.

[향후 계획 : 비준 및 발효]

□ 정부는 한-영 FTA가 적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**현재 예정된 브렉시트 시점 이전에 국회 동의 등 비준 절차를 완료**할 계획이다.

□ 한-영 FTA 정식 서명본과 서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(www.fta.go.kr)에 공개될 예정이다.

※ 한-영 FTA 서명식 행사사진은 8.22일 20시경 송부 예정



이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FTA이행과 김선애 사무관(☎ 044-203-576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